

#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Rewards, Costs and Adjustment Perceived by Adult  
Children in Three Generation Family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정혜정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서병숙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yejeong Chung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Byong Sook Seo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rewards, costs, and adjustment perceived by adult children in three generation family. Data were collected from 132 marital couples in three generation family in Seou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rewards, costs, and adjustment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It was also found that wives's costs and husbands' rewar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ree different types of three generation family. It additi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reward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affecting wives' depress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that cost influenced husbands'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 1. 서 론

우리나라 가족은 전통적으로 장남이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3세대 가족(이 경우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이상형으로 하는 가족형태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1996)에 의하면, 1970년에 3세대 가구 비율이 22.1%, 1980년에는 16.5였으나 1995년에는 11.5%로서 지난 20여년에 걸쳐 3세대 가구 비율이 약 11%정도 감소하였다. 3세대 가구의 이러한 외형적인 감소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노인부양은 전적으로 그 자녀들의 몫이었으나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처럼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의 부양정책이 따로 없는 실정에서 노인들의 심리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3세대 가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노부모 부양책임이 성인자녀에게 있다는 의식이 매우 높아서, 199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87.3%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노부모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자녀들이 6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3세대 가족의 절대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노부모를 모시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가치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3세대 가족에 대한 이념적인 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3세대 가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노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에 관한 연구(김태현, 1994; 송현애, 1993; 이신숙, 1994)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자녀 부부의 노부모를 위한 부양에만 일방적인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노부모를 의존적

이며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층으로 다소 잘못 이해하여 '요구만 하는 세대' 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왜곡된 정의를 내릴 소지가 있다(손승영, 1992).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세대간의 상호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tthews, 1988). 따라서 한편으로는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부모가 성인자녀를 위해 베푸는 기여나 도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양세대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손승영, 1992)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세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에 관한 연구는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까지 고려될 경우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래에는 기혼여성들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과 비용을 파악한 연구(윤순덕·한경혜, 1994)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행위와 대인관계를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한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3세대 동거시의 보상과 대가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적 복지 및 가정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사회교환이론이 노부모 부양에 적용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김명자·안신영·한정화, 1996; 조병은·신화용, 1992), 이들 연구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성인자녀뿐 아니라 분거하고 있는 자녀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으므로 3세대 가족안에서 성인자녀의 경험을 그대로 포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3세대 가족형태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지만, 3세대 가족을 선호하는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한남제,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심리적 복지 및 결혼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 한다. 본 연구결과는 현대 우리나라의 3세대 가족에 관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

고, 또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부부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상담에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3세대 가족의 특성과 변화

3세대 가족은 보통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그 자녀의 3세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다. 조선후기 이후의 한국인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가구주 부부와 가구주의 직계비속중 장남, 장손 등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로 구성되는 이른바 직계가족이었다. 3세대 가족은 우리나라 직계가족의 전형적인 형식이지만 지배권을 장악한 가부장이 이것을 자기의 모든 가족원 즉, 자의 세대나 손의 세대에게 행사하는 가족으로서 가부장의 권위와 권력이 강한 가족이다. 이 가족은 세대를 연결하여 연속해 가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이며, 횡적인 부부관계보다 종적 관계 즉, 직계존속에 대한 일방적인 봉사의 관계가 존중되는 가족으로서 가족의 영속을 강조한다.

3세대 직계가족에 대한 이념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3세대 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3세대 가족에 대한 동거의식이나 선호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3세대 가족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3세대 가구비율은 1970년 22.1%에서 1990년에는 13.6%, 1995년에는 11.5%로 감소하였다(통계청, 1996).

3세대 동거에 대한 의식의 경우, 산업화와 더불어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인자녀 세대는 물론 노부모 세대까지 3세대 동거를 선호하는 의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3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1.6%가 “자녀들과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3세대 동거에 관한 한 가

족가치의 변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3세대 가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핵가족을 선호하는 가치가 지속될 것이지만 아울러 3세대 가족을 선호하는 가치도 동시에 존재할 것이며(한남제, 1994), 산업화가 진행되더라도 확대가족은 살아남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안병철, 1997).

한편 전통적으로 3세대 가족은 부계가족의 존속을 위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계 3세대 가족도 형성되어 왔다. 199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딸이 그 노부모와 동거하는 모계 3세대 가족은 전체 3세대 가족 가운데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계3세대 가족은 “보리쌀 서말이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족구조는 전혀 아니었으나, 이제는 모계3세대 가족의 개념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양가 노부모와의 접촉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한국여성개발원, 1991), 성인자녀들이 시가 및 처가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시가와의 접촉은 주로 의례적인 행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나 처가와의 접촉은 부인에게 지지적인 성격이 많아 아이돌보기나 경제적, 물질적 도움 또는 정서적인 도움 등을 주고 받는다.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친정어머니와는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을 맡길 때 보다는 마찰이 적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보고된다. 또한 처가살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관계와는 달리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박숙자, 1995), 모계3세대 가족에서의 부부관계는 부계가족에서의 부부관계와 다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3세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계와 모계로 구분하고, 또 부계 3세대 가족도 노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부계양친 3세대 가족과 노부모 가운데 한 분만 생존해 있는 부계편친 3세대 가족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가족원의 지배권을 부계양친 3세대 가족의 경우 노부모 세대가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나, 부계 편친 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족원들의 경험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2. 3세대 가족 동거시의 보상과 대가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가족 안에서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보상과 대가에 관한 연구의 근간이 된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시된 성인자녀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에 관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1)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며 (즉,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대가를 최대한 늘이고자 하는 선택을 하며), (2)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리고 (3) 사회적 행동이 과거에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보상(rewards)이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나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 감사 등을 뜻하며, 대가(costs)는 개인이 싫어하는 지위나 관계, 상호작용 및 상황 등을 뜻한다(Nye, 1979).

실제로 인간의 상호작용의 원천이 호혜성에 있다고 간주하여 대인관계를 대가와 보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사회교환이론은 1980년대 들어와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노부모 부양은 성인자녀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부양의무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제재는 성인자녀로 하여금 노부모 부양의무를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Finey, Roberts & Banaha, 1988). 그러므로 효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 규범이 여전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 부양을 잘한다는 것은 다양한 보상의 원천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되고 이것은 대가로 작용할 것이다(김명자 외 2인, 1996).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노부모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은 걱정, 좌절감, 긴장, 초조 등의 감정적 대가, 친구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시간부족, 사생활 제한, 신체적 대가 및 재정적 대가 등으로서 부담감이 다차원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으로서는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 습득, 노부모와의 관계 증진,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의 강화, 노부모로부터 가사나 육아의 도움, 노부모가 최선의 부양을 받고 있다는 확신감, 노부모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데 대한 만족감, 개인의 종교 또는 도덕적 원리에 따른 생활에서 오는 만족감, 인생에 있어서 잠재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과 의미를 강화한다(김명자 외 2인, 1996). 이러한 연구들은 보상이 감정적이며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며(Walker, 1992), 노부모 부양이 부담만은 아니며 도전이며 성취의 경험과 경쟁을 나타내는 기회일 수 있다(Moss, 1987)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동거를 하든 분거를 하든 상관없이 성인자녀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3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의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윤순덕과 한경혜의 연구(1994)는 시부모나 친부모 중 적어도 한 분과 동거하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보상)과 비용을 조사한 직접적인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보상은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 세탁, 부엌일, 집바주기, 주택비 절감, 자녀교육 도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용은 경제적·심리적·가사일 부담, 사생활 부족, 생활시간 차이, 행동제약, 의견충돌, 집의 협소라는 내용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상과 대가의 내용으로 부부관계나 친척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가족안의 다양한 하위체계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존재한다. 특히 부부관계는 부부 두 사람에게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3세대 가족의 경우에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재산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가풍에 따라 생활습관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는 인척의 영향이 핵가족에 비해 더 크므로 인척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따라서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는 자녀교육 및 가사관련 보상과 대가 뿐 아니라 부부 관계와 친척간의 조화나 갈등 등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의 보상과 대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관련변수 고찰

노부모와의 동거시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 및 대가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환경적 특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성인자녀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는 보상 및 대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성인자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보상 및 대가와 연관된 변인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들(Hagestad, 1987; Bengtson, 1979; Suitor & Pillemer, 1988, 윤순덕·한경혜, 1994에서 재인용)은 성인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간 이해의 폭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연구들(고선주, 1990; 조병은·신화용, 1992)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보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공세권 등(1990)은 도시 기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직후 시부모와의 동거가 높음을 보고한다.

가정환경적 요인으로는 동거의 동기를 들 수 있는데, 성인자녀가 동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노부모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갈등이 적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Suitor & Pillemer, 1988) 도움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기간 또한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Suitor와 Pillemer(1988)은 오랜 동거가 갈등해결 능력을 서로간에 개발할 수 있게 하여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형태 또한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보상 및 대가와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의 경우에 더 많은 보상과 더 적은 비용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김순기·유영주, 1994; 서병숙·장선주, 1990; 송현애·김순옥, 1988; 조병은·신화용, 1992). 이러한 결과는 시댁과의 관계는 의무감에서 연유한 규범적 관계인 반면, 친정과의 관계는 정서적 관계이기 때문에 규범적 관계인 시모와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혼여성의 시/친모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동일한 3세대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계가족인가 모계가족인가의 여부, 그리고 동거하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지 편친만 생존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대상으로 기혼여성들만 선택함으로써 3세대 동거에 따른 보상과 대가가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의 가족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부부간의 경험차이일 것이다. 일찍이 Bernard(1972)가 지적하였듯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경험이 지 않아서 기혼남자가 독신남자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데 비해,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우울성향이나 불안이 더 높고 자존감은 더 낮아서 결혼이 남자에게 좋은 만큼 여자에게 좋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권희완(1992)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개의 항목에서 남편들과 아내들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생활에 대한 불만은 부인이 더 높았던 반면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결혼생활에 기대했던 만큼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도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훨씬 더 높았다.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높았으나 우울감은 아내들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계가족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3세대 가족내에서 성인자녀인 남편과 아내의 경험은 더욱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

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적응 변인으로서 심리적 복지(자존감, 우울감), 결혼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를 선택하였다. 가족의 적응은 가족이 전체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결과로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가족원의 지각을 통해 측정된다. 가족의 적응이 가족기능의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나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질문지법을 사용한 횡단적 연구에서는 가족의 적응을 가족의 기능에 대한 결과로서 측정할 수 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가족의 적응을 어떻게 측정하였는가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Buehler, 1990). 가족의 적응은 개인과 부부 그리고 가족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다(김명자, 1993; Buehler, 1990). Florian과 Dangoor(1994)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의 적응 지표로서 여성의 정신건강수준을, 그리고 가족적 수준에서의 적응지표로서 가족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3세대 가족생활의 경험에 대한 성인자녀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탐색적으로 시도하고 따라서 세가지 수준에서의 적응을 모두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3세대 가족생활의 경험에 대한 성인자녀 부부의 적응을 개인적 수준에서는 심리적 복지로, 부부 수준에서는 결혼만족도로, 그리고 가족 수준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로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하여 본 연구는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또 보상과 대가가 심리적 복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3세대 가족 내에서의 보상과 대가 및 적응(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은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및 가정환경 변인(동거지속년수, 결혼시 동거조건 여

부, 가족형태)에 따라 보상과 대가 및 적응에는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

(3) 3세대 가족내에서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는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은 보상과 대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 보상과 대가는 각 적응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표집

본 연구자료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서울 및 서울 근교 소재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7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3세대 가족을 이루고 사는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작성케 한 후 수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200쌍(전체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152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된 20쌍의 질문지를 제외한 132쌍의 질문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평균연령은 39.02세, 남편은 41.7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아내와 남편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으나 중졸 이하도 아내 17명(13.1%), 남편 12명(9.2%)이었다. 또한 함께 사는 노모와 노부의 평균연령은 각각 70.13세와 72.27세였으며, 만자녀와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각각 13.16세와 9.43세였다.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14.38년이고, 3세대가 함께 동거한 연수는 평균 12.13년이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평균 318만원 정도로 본 연구대상자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계의 평균 보다 높은 집단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장남인 경우가 59명(45.7%)이고 외아들의 경우가 19명(14.7%)으로 장

남과 외아들인 경우가 기타인 경우(39.5%)보다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계양친 가족이 35쌍, 부계편친 가족이 83쌍, 그리고 모계 3세대 가족이 12쌍(9.2%)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56.5%)가 없는 경우(43.5%) 보다 조금 많았고, 남편은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56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공자영업, 사무직, 전문기술직, 그리고 기능노무직의 순이었다.

## 2. 측정도구 구성 및 내용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의 내용은 예비조사에서 얻은 내용과 관련문헌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3세대 가족이 동거함으로써 좋다고 느끼는 점(보상)과 싫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점(대가)을 자유응답식 형태로 복수응답하게 하였다. 예비조사와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하여 보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녀교육 도움, 부부관계 향상, 개인성장, 가족조화, 일상생활도움에 관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또 대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녀교육 갈등, 부부생활 제약, 개인생활제약, 가정경제 문제, 일상생활 어려움, 그리고 기타의 대가에 관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조사에서 이들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편도(skewness)가  $\pm 1.0$ 이상인 항목에 대하여 제곱근 형태로 자료를 변형시켰으나, 그래도 편도가  $\pm 1.0$ 이상으로 편포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제외하고, 보상 23문항 그리고 대가 16문항만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최종분석에서 3세대 동거의 보상은 자녀교육 도움 5문항, 부부관계 향상 2문항, 개인성장 5문항, 가족조화 5문항, 일상생활 도움 6문항 등 5개 측면의 총 23개 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보상이 높음을 나타낸다. 보상에 대하여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조사 결과 아내는 Cronbach's  $\alpha = .93$ , 남편은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한편 3세대 동거시 대가는 자녀교육 갈등 3문항, 부부생활제약 4문항, 개인생활제약 5문항, 일상생활어려움 4문항 등 16개 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대가가 높음을 나타내는데, 신뢰도 검사 결과 아내는 Cronbach's  $\alpha = .93$ , 남편은  $\alpha = .9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는 자존감과 우울감의 두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자존감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79)의 척도로 측정하였고, 우울감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진 Ul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두 변인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우울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자존감은 Cronbach's  $\alpha = .74$ , 우울감은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와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가정생활이 행복한 정도'를 묻는 2문항으로서 '매우 만족(또는 행복)하다'에서 '매우 불만족(또는 불행)하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아내는  $\alpha = .82$ ,  $\alpha = .77$ 이었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5점 리커트식 척도 4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 결과 아내는  $\alpha = .86$ , 남편은  $\alpha = .84$ 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부간 차이 분석 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의 보상과 대가의 각 항목과 영역에 대하여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세대 동거시 보상 가운데 자녀교육 도움, 부부관계향상, 개인성장 및 가족조화의 영역에서 부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의 각 영역

에서 아내보다 남편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영역에서도 부부간의 차이가 유의수준에 접근했다.

한편 3세대 동거시의 보상과는 반대로 대가의 모든 영역에서는 아내의 점수가 남편의 점수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표 2 참조). 따라서 3세대 가족안에서 남편들은 보상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아내들은 대가를 더 많이 치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도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자존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는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높았으나, 우울감은 아내들이 더 높았다.

## 2.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차이 또는 관계 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수에 따른 차이 또는 관계 분석을 위해 우선 결혼시 동거조건 여부와 직업에 따라서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는다. 그 결과, 결혼시 부모님과과의 동거를 조건으로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아내의 대가 수준과 남편의 보상감 수

<표 1> 3세대 동거시의 보상감에 대한 부부간 차이 검증 결과

보상감	자녀교육 도움	부부관계 향상	개인성장	가족조화	일상생활 도움	전 체
아 내	3.65	3.31	3.42	3.60	3.26	3.43
남 편	3.91	3.65	3.61	3.84	3.64	3.64
paired-t값	-4.18***	-4.55***	-3.02**	-3.76***	-3.75***	-3.75***

\* p<.05 \*\* p<.01 \*\*\* p<.001

<표 2> 3세대 동거시 대가에 대한 부부간 차이검증 결과

대가	자녀교육 갈등	부부생활 제약	개인생활 제약	일상생활 어려움	전 체
아 내	2.75	3.20	2.82	2.71	2.88
남 편	2.45	2.86	2.45	2.28	2.50
paired-t값	3.47***	4.74***	5.84***	6.12***	6.26***

\* p<.05 \*\* p<.01 \*\*\* p<.001

<표 3> 부부간 차이분석 결과

	아 내		남 편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34.96	4.90	36.48	4.98	-2.72**
우울감	25.16	6.87	20.89	6.76	5.41***
가정생활만족도	5.07	1.39	5.95	1.31	-6.02***
결혼만족도	15.32	3.26	16.03	1.77	-2.69**

\* p<.05 \*\* p<.01 \*\*\* p<.001



준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결혼시 동거를 조건으로 했다는 아내집단(M=2.30, SD=.69)이 그렇지 않았다는 집단(M=2.67, SD=.70)보다 대가 수준이 더 높았다( $t=2.60, p<.01$ ). 남편의 경우는 결혼시 동거를 조건으로 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보상감(M=3.79, SD=.51)이 그렇지 않았다는 집단의 보상감(M=3.51, SD=.54)보다 더 높았다( $t=2.77, p<.01$ ). 한편 결혼시 동거조건 여부에 따른 남편이나 아내의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내의 직업유무와 남편의 직종에 따라서도 보상과 대가 및 적응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 가운데 연령, 교육수준, 소득, 3세대 동거년수 등 동간척도 이상으로 구성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상관관계를 통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아내집단의 경우 교육수준만이 보상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r=-.26, p<.01$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상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윤순덕과 한경혜의 연구(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이고 근대적인 가족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남편의 경우는 연령과 보상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r=-.30, p<.01$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보상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r=.34, p<.001$ )과 소득( $r=.44, p<.001$ )은 대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가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남편의 자존감( $r=.27, p<.001$ )과 가정생활만족도( $r=.22, p<.05$ )는 소득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자존감이 높았고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변수들간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집단을 각각 분리하여 부계양친, 부계편친, 모계 3세대 가족의 세가지 형태에 따른 보상과 대가 및 적응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앞서 분석한 부부간 차이에 대한 추후 분석의 일환으로서 각 가족형태안에서 여러 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부부간에 발견되는 차이가 가족형태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차이인지 아니면 가족형태에 따라 부부간의 차이가 달라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우선 아내와 남편 집단을 분리하여 가족형태에 따른 보상과 대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형태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결과 아내집단은 대가와 가정생활만족도에서, 그리고 남편집단은 보상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아내집단의 경우, 부계양친 가족에서의 대가와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남편들의 보상감은 부계양친가족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 비용뿐 아니라 보상도 높았다는 조병

<표 4> 가족형태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아 내				남 편			
	부계양친	부계편친	모계	F값	부계양친	부계편친	모계	F값
보상	3.55	3.35	3.70	1.89	3.95 a	3.57 b	3.60 b	6.03**
대가	3.20 a	2.83 b	2.41 c	5.84**	2.69	2.49	2.22	2.83
자존감	34.61	35.03	34.58	.11	35.74	36.06	38.82	1.71
우울감	26.78	24.77	24.08	1.04	21.68	20.18	22.50	1.02
결혼만족도	14.53	15.47	16.00	1.34	15.89	16.17	15.64	.64
가정생활만족도	5.69 a	4.70 b	4.46 b	7.65***	4.20	4.03	4.08	.22

\*  $p<.05$  \*\*  $p<.01$  \*\*\*  $p<.001$

은과 신화용(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부계양친 가족에서 아내들은 노부모 부양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더 큰 대가를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며느리 자신의 떳떳함과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계양친 3세대 가족에서 남편들은 노부모 부양에 따른 실제적인 부담보다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만족감이 보상감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형태를 분류하여 각 변인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paired-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계 3세대 가족에서는 거의 모든 변인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모계3세대 가족에서는 자존감과 가정생활만족도에서만 부부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계양친과 부계편친 가족에서의 보상감은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높았으나 대가는 아내들이 더 높았다. 또한 부계 3세대 가족에서 결혼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는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높았으나 우울감 수준은 아내들이 더 높았다. 한편 모계 3세대 가족에서의 보상과 대가, 우울감과 결혼만족도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존감 수준은 남편들이 더 높았으나, 가정생활만족도는 아내들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3세대 가족이라 하더라도 3세대 가족의 형태에 따라 부부간의 경험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계3세대 가족에서는 아내들의 적응 수준이 남편들보다 더 낮았으나, 모계3세대 가족에서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우울감과 결혼만족도에서는 부부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간 경험차이에 대한 시각(Bernard, 1972)과 실증적 연구결과(권희완, 1992; 최규련, 1995)가 모계3세대 가족의 부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3세대 가족의 보상과 대가,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아내들의 경우 보상은 대가 및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내들의 대가는 우울감과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내들의 자존감은 우울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정생활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감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정생활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상감은 대가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가정생활만족도와는 정적 상

〈표 5〉 가족형태별 각 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분석 결과

	부 계 양 친			부 계 편 친			모 계 3세대 가 족		
	아내	남편	Paired-t	아내	남편	Paired-t	아내	남편	Paired-t
보상	3.57	3.93	-2.82**	3.29	3.52	-3.21**	3.70	3.62	.37
대가	3.22	2.66	4.29***	2.82	2.46	5.28***	2.41	2.38	.16
자존감	34.87	36.13	-1.03	35.05	36.20	-1.73	34.36	38.32	-3.04**
우울감	27.10	21.65	2.79**	24.41	19.99	5.31***	24.08	22.50	.61
결혼만족도	14.53	15.88	-2.31*	15.42	16.10	-2.20*	16.27	15.64	.74
가정생활만족도	5.69	4.20	4.87***	4.71	4.03	3.74***	4.46	3.91	2.63*

\* p<.05 \*\* p<.01 \*\*\* p<.001

〈표 6〉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상	대가	자존감	우울감	가정생활 만족도	결혼 만족도
보상		-.20*	.16	-.11	.41***	.08
대가	-.23*		.05	.33**	-.34***	-.07
자존감	.09	.04		-.29**	.36***	.26**
우울감	-.24*	.55***	-.24*		-.29**	-.25*
가정생활만족도	.44***	-.57***	.22*	-.42***		.42***
결혼만족도	.35**	-.47***	.07	-.47***	.60***	

\* p&lt;.05 \*\* p&lt;.01 \*\*\* p&lt;.001

(참고: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아내의 결과이고, 대각선 위는 남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임)

관이 있었다. 또한 대가는 우울감과 정적 상관, 가정생활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자존감 및 가정생활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으나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 보상과 대가가 우울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존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다. 또한 아내들의 경우 보상보다는 대가가 아내들의 적응변인과 더 높은 상관이 있었고, 남편들의 보상과 대가는 가정생활만족도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결혼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 4.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이 보상, 대가 및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문제 4〉 및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 앞서 시행한 t검정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보상이나 대가와 유의미한 관계 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들만 선택하여 이들 변인이 보상과 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 이들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변수로 하고 보상과 대가가 적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각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자기회귀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내집단은 1.75 - 2.28 사이의 값을, 남편 집단은 1.76 - 2.35 사이의 값을 보여 오차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내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표 7 참조),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가정환경 변인(동거조건, 가족형태)은 3세대 가족안에서 아내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변수로 하고 보상과 대가가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인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비율이 67%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귀식에 투입된 모든 변인들을 고려했을 때 결혼시 동거를 약속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높았고, 보상은 가정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대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8 참조), 회귀식에 투입된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이 보상을 설명하는 비율은 34%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은 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시 동거조건 여부에 따라서도 남편의 보상감에 차이가 있어서 동거를 조건으로 했다는 남편 집단의 보상감이 더 높았다. 또한 이들 변인이 남편들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비율은 26%로 나타났는데, 남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

〈표 7〉 아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보 상	대 가	자 존 감	우 울 감	가정생활만족	결혼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3(-.22)	-.01(-.05)	.06( .23)	-.72(-.56)*	.01( .06)	.00( .00)
교육수준	-.09(-.29)	.02( .09)	.28( .15)	-2.43(-.75)**	.04( .09)	.45( .35)
소득	-.00( .10)	.00(-.01)	.01( .23)	-.00(-.02)	.00( .21)	-.01(-.25)
동거조건	.47( .32)	.04( .03)	-2.98(-.34)	5.46( .38)	-1.05(-.50)**	-2.39(-.39)
가족형태 1	-.08(-.03)	-.04(-.02)	-5.63(-.34)	4.30(-.24)	-2.17(-.39)**	.50( .05)
가족형태 2	-.29(-.17)	.57( .43)	.21( .02)	-3.26( .16)	.40( .16)	2.63( .38)
보상			1.03( .57)	-8.48(-.76)**	.91( .58)***	1.28( .28)
대가			-.63(-.09)	1.95( .15)	-.92(-.51)**	-1.68(-.32)
Adj. R <sup>2</sup>	.06	.04	.17	.30	.67***	.07

\* p<.05 \*\* p<.01 \*\*\* p<.001

〈표 8〉 남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보 상	대 가	자 존 감	우 울 감	가정생활만족	결혼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2(-.18)	.00( .00)	-.14(-.20)	-.05(-.05)	-.03(-.16)	-.03(-.11)
교육수준	-.06(-.33)*	.00( .00)	.53( .32)	-.66(-.29)	.00( .01)	-.00(-.01)
소득	.00( .01)	.00( .29)	.00( .11)	-.01(-.13)	.00( .24)	.00( .21)
동거조건	.51( .51)**	-.12(-.09)	1.29( .14)	1.87( .15)	.19( .08)	-.74(-.23)
가족형태 1	-.26(-.16)	.33( .18)	-1.63(-.12)	-.75(-.04)	-1.00(-.25)	-.18(-.03)
가족형태 2	-.07(-.06)	.77( .55)*	-3.27(-.32)	-2.66(-.19)	-.02(-.01)	-1.55(-.42)
보상			1.88( .21)	-5.02( .41)	.29( .12)	.66( .20)
대가			-2.36(-.33)	3.63( .36)	-1.19(-.58)**	-1.19(-.45)*
Adj. R <sup>2</sup>	.34**	.10	.23*	.09	.26*	.06

\* p<.05 \*\* p<.01 \*\*\* p<.001

· 아내와 남편 모두 회귀식에 투입된 가변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족형태에 대한 가변수 (가족형태 1: 부계양친 가족=1, 모계 & 부계편친 가족=0;  
 가족형태 2: 부계편친 가족=1, 모계 & 부계양친 가족=0).  
 동거조건에 대한 가변수 (결혼시 동거 약속=1, 동거 약속 안함=0).

한 변인은 대가로서 3세대 동거로 인한 대가가 높을 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요약하면 아내의 보상과 대가는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보상은 교육수준과 동거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

적 및 가정환경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 보상과 대가가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대가와 보상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고 반면, 남편 집단에서는 대가만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적응 변인 가운데 3세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적응 변수로서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인이며, 다른 적응 변수는 가정생활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보상과 대가가 부부간에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심리적 복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등의 적응 변인은 보상 및 대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각 변인들이 보상과 대가 및 적응변인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나 3세대 가족을 선호하는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3세대 가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몇가지 특징적인 결과를 논의하면, 우선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적응변인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대가의 경우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으나, 보상감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존감, 결혼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은 남편들이 더 높았으나 우울감 수준은 아내들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의 경험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권희완, 1992; 최규련, 1995)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세대 가족형태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이와 같은 부부간 경험의 차이가 부계3세대 가족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가족형태를 분류하여 부부간 경험차이를 분석하였을 경우, 부계 3세대가족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부부간 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계3세대 가족에서는 거의 모든 변인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성격 변화에 비추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부장적 가치규범이 지배하는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 간주되며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이 우선시되고 부부간의 관계는 불평등했던 제도적 결혼의 성격이 강했다. 한편 산업사회에서의 결혼은 부부간의 애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우애적 결혼의 성격이 더 강하다(홍옥화, 1995). 부계3세대 가족은 제도적 결혼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형성된 가족형태이므로, 부계3세대 가족에서 여성은 보상보다 대가를 더 크게 경험하고 부부간의 불평등을 더 크게 경험할 것이며 그 결과 결혼만족도나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낮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계3세대 가족에서 아내들은 대가를 높게 지각한 반면 남편들은 보상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3세대 동거로 인한 부부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모계3세대 가족은 우애적 결혼을 지향하는 시대와 사회에 형성되며, 따라서 그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보다 평등하고 부인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므로 부부간의 경험 차이가 적을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아내들의 경우에는 대가에서 그리고 남편집단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들은 부계편친이나 모계3세대 가족보다 부계양친 가족에서 대가를 더 높게 지각한 반면 남편들은 보상감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기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들의 당연한 도리로서 가부장적 가족규범을 따르는 남편들은 보상감을 높게 경험하는 반면, 아내들은 노부모 부양의 실제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그에 따른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이 대가를 높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 보상과 대가가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한 결과,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내의 경우에는 대가와 보상 모두가 가

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집단에서는 대가만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의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은 일차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며,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들의 대가를 감소시키고 보상을 증진시키는 한편 남편들의 대가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가정생활만족도가 기타 적응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3세대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결혼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3세대가 동거하는 가족내 성인자녀 부부를 표집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자료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모계3세대 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3세대 가족내에서 성인자녀 부부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 가족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족형태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노부모와의 관계가 부계중심에서 점차 모계 쪽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딸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친정신세를 저야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추세(박숙자, 1995)에 미루어 볼 때, 모계3세대 가족내에서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결혼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모계 3세대 가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3세대 가족에 관한 연구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3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성인자녀 부부는 물론 3세대 동거 노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와 제한점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연

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계편친 가족은 부계 노부모 중 한편과 동거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성인자녀 부부가 부계의 노모(아내의 시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노부(아내의 시부)와 동거하는 경우 부부관계의 질이나 대가 및 비용의 정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3세대 가족형태를 조금 더 세분화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고, 특히 부계편친 3세대 가족의 형태를 세분한 연구(예, 부계부친 동거 가족, 부계모친 동거 가족 등으로 분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부부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변인만 선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3세대 가족내 노부모의 입장과 노부모 관련변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탐색작업이 이루어져 양세대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동거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선주 (1990). 기혼취업여성들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권희완 (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명자 (1993). 가족의 성립과 적응.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서울: 하우.
- 김명자 · 안선영 · 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순기 · 유영주 (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09-219.
- 김태현 (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박숙자 (1995). 가족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서병숙 · 장선주 (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 교류 연구--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3), 171-186.
- 손승영 (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송현애 · 김순옥 (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83-102.
- 안병철 (1997). 사회변동과 가족.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윤순덕 · 한경혜 (1994). 도시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 (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신숙 (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병은 · 신화용 (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통계청 (1996).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저자.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노인생활 실태 및 의식 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저자.
- 한남제 (1994).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남제 외 4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다산출판사.
- 홍옥화 (1995). *가족형성과과정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Bernard, J. (1972). His and her marriages. In James M. Henslin (ed.),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Y: The Free Press.
- Buehler, (1990). Adjustment. In J. Touliatos, B. F. Perlmutter, & M. A. Strau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Florian, V., & Dangoor, N. (1994). Personal and familial adaptation of women with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A further validation of the Double ABCX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735-746.
- Hinrichsen, G. A., Hernandez, N. A., & Pollack, S. (1992). Difficulties and rewards in family care of the depressed older adult. *The Gerontologist* 32(4), 486-492.
- Kosberg, J. I., & Cairl, R. E. (1986). The cost of care index: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3), 273-278.
- Nye, F. I. (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 F. I. Nye,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Research-based Theories*. NY: The Free Press.
- Suitor, J. J., & Pille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1307-1407.
- Walker, A. J., Sally, S. K., Mann, & Jones, L. L. (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47(3), 130-139.